

Effective Approaches to Attention-ba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

(https://arxiv.org/abs/1508.04025)

부스트캠프 Al tech 5기 NLP 김태민

목차

- Introduction
- Attention-based Models
- Attention Layer
- Learning techniques
- Experiments
- Question

Introduction

기존 연구의 한계점

- Seq2Seq 모델에서의 Context Vector가 병목 현상을 발생시킨다.
- NMT에서 Attention기반의 유용한 아키텍쳐를 가진 모델이 거의 없다.
- 기존의 Attention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은 LSTM,GRU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긴 문장을 잘 처리하기가 어렵다.
- 기존의 soft attention은 연산량이 매우 많으며 hard attention은 미분이 불가 능하여 어려운 테크닉이 들어가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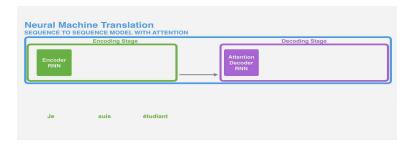


전체 개요

- 기존 Encoder-Decoder에서 Decoder 구조에 Attention 메커니즘을 도입 하였다.
- 기존의 Encoder 마지막 hidden state만 사용 되었던거와 달리 모든 Encoder hidden state를 사용하여 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 하였다.
- 기계 번역 작업에서 영어를 프랑스어로 영어를 독일어(WMT'15)로 변역하는 테 스크에서 SOTA를 달성
- Attention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보다 긴 문장을 잘 처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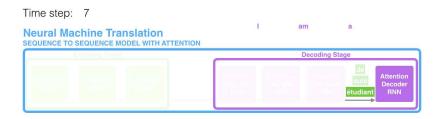
soft attention과 hard attention의 조합인 Loacl attention이라는 새로운 attention 방법을 제시한다.

Attention-based Model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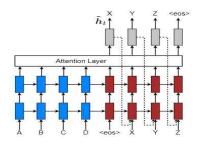
- 기존의 Seq2Seq모델이 Encoder의 마지막 hidden state만 사용했던거와 달리 Encoder의 모든 step에서 hidden state를 Decoder에 전달해주어 이를 통하여 output을 통과시킨다.
- 기존의 일반 Dencoder와 달리 Attention Decoder로 실제로는 Decoder의 hidden state 위에 Attention Layer가 추가된다.

Attention-based Model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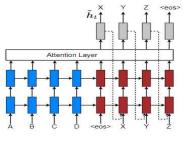
- 만약 입력이 위 그림과 같이 Je -> suis -> etudiant의 순서로 들어가게 된다면 디코터의 입력으로는 <eos> -> I -> am -> a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Time step7인 a가 입력으로 들어갔을때 attention에 의해 a와 같은 포지션인 etudiant가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.





- 실제 입력으로는 토큰 A~D가 Encoder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<eos>토큰이 입력되면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 각각의 output 을 출력하게 된다. 이때 Encoder의 각 hidden state가 Attention Layer에 입력되고 Decoder에선 매 Time step 마다의 Decoder hidden state 1개가 Attention Layer에 입력 된다.
- 최종적으로 모든 Encoder hidden state와 각 Time step의 Decoder hidden 1개가 입력되어 attention layer을 통과하고 FFN를 거쳐 h(~)_t 이를 통해 output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Decoder의 입력부터는 output과 h(~)_t 그리고 t-1의 hiddent state가 함께 들어가게 되어 이를 반복한다.

Attention-based Models



$$p(y_t|y_{< t}, x) = \operatorname{softmax}(\boldsymbol{W_s}\boldsymbol{\tilde{h}_t}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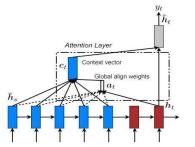
$$ilde{h}_t = anh(W_c[c_t; h_t])$$

$$J_t = \sum_{(x,y)\in\mathbb{D}} -\log p(y|x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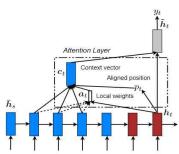
- 최종 목적식 J_t 은 위와 같으며 D는 우리의 training corpus이며 x가 주어졌을때 y에 log를 씌우고 를 붙힌후 이를 다 더하는 공식이다.
- -Attention Layer을 통과한 후의 h(~)_t는 Attention Layer의 내부에 있는 Context vector c_t와 현재 time step의 hidden state h_t와의 각종 연산으로 계산 되며 이에 가중치를 곱하고 tanh 활성화 함수를 적용시켜 h(~)_t를 구하게 된다.
- Time step의 output인 v t는 h(~) t와 가중치를 곱하여 softmax 함수를 통과하여 결정된다.

Attention Layer

Global Atten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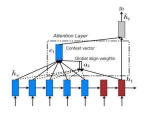
Local Attention



- Attention Layer는 총 2가지의 종류로 구분된다.
- Global Attention은 모든 Encoder의 hidden state를 보는 것이며
- Local Attention은 Windows 사이즈 만큼의 주변 Encoder의 hidden state를 본다.

Global Attention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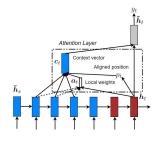
- 위 영상처럼 Encoder의 모든 h 와 현재 Decoder의 h_t를 통하여 score를 계 산한다.
- 이후 score에 softmax함수를 적용하고 나온 벡터를 다시 Encoder의 모든 h 와 weight sum을 하게되어 최종적인 Context vector인 c_t 가 나오게 된다.

Global Attention

$$\begin{aligned} & \operatorname{score}(h_t, \bar{h}_s) = \begin{cases} h_t^\top \bar{h}_s & dot \\ h_t^\top W_a \bar{h}_s & general \\ v_a^\top \tanh \left(W_a[h_t; \bar{h}_s]\right) & concat \end{cases} \\ & a_t = \operatorname{softmax}(W_a h_t) & location \\ & a_t(s) = \operatorname{align}(h_t, \bar{h}_s) \\ & = \frac{\exp\left(\operatorname{score}(h_t, \bar{h}_s)\right)}{\sum_{s'} \exp\left(\operatorname{score}(h_t, \bar{h}_{s'})\right)} \end{aligned}$$

- 실제 a_t를 연산하는데 score값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. 논문에서는 단순히 초기에는 location을 사용하였다고 한다.
- -그 후 a t는 softmax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a t를 얻어내게 된다. 마치 self attention처럼 softmax를 적용하게 되면 관계성을 확률로 변환시킨다.
- c_t는 Encoder의 모든 h와 a_t와의 weight sum을 하여 Context vector c_t을 완성한다.
- 추후 c t와 h t를 concat 시키고 FFN을 통과시켜 output을 뽑아낸다.

Local Attention



- 이 논문에서 주장한 Local Attention은 soft attention과 hard attention의 어딘가 그 중간이라고 설명한다.
- Global attention과 다른 점은 모든 Encoder의 n만 쓰는것이 아니라 window 사이즈를 지정해 위 사진 처럼 현 t의 위치의 윈도우 사이즈(1)로 양 옆의 encoder n만 사용한다는 점이다.
- 또 다른 점으로는 p_t 라는 벡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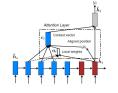
Local Attention

$$p_t = S \cdot \operatorname{sigmoid}(\boldsymbol{v}_p^{\top} \tanh(\boldsymbol{W}_p \boldsymbol{h}_t)),$$

$$a_t(s) = \operatorname{align}(h_t, \bar{h}_s) \exp\left(-\frac{(s-p_t)^2}{2\sigma^2}\right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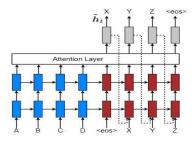
$$a_t = \operatorname{softmax}(W_a h_t)$$

loc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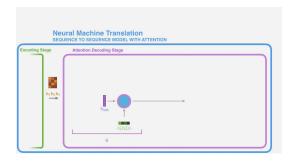
- 우선 p_t 는 현재 대상 단어의 위치를 단일로 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. 이후 c_t 에서 a_t 와 함께 연산할때 두번째 수식처럼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에 들어가 게되는데
- 이를 통하여 a t는 윈도우 사이즈 만큼의 h와 현재 ht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정규분표에서 임의로 샘플링 된 값을 곲하여 새로운 벡터를 얻어낸다.
- 이후 c t와의 계산은 Global Attention과 동일하다.

Feed input



- feed input 은 단순하게 $h(\sim)$ t가 next-step의 input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위 사진에선 점선으로 표시되었다.
- feed input으로 인해 다음 스텝을 생성할때 이전에 번역된 단어를 고려할수 있게된다. 또한 긴 문장을 고정 길이 벡터로 인코딩할때 발생하는 정보 손실 을 완화하는 역할 또한 한다.
- 전체 문장의 맥락과 의미를 고려하는데 정확성을 향상 시킨다.

Attention Layer



- 실제 연산을 GIF로 보게되면은 편리하다.
- encoder의 h와 현재 h_t를 Attention하여 나온 벡터와 현재 h_t를 concat 시 켜서 FFN을 통과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.

Learning techniques

- Dataset : WMT'14 (1억 1600만 영어단어, 1억 1천만 독일어 단어)
- vocab : 자주 사용되는 단어 50000개 사용(없는 토큰은 <unk>로 대체)
- 훈련 시 길이가 50단어 초과하는 문장 쌍은 필터링하며 진행하였다.
- model : 4_Layers의 LSTM을 사용하며 1000 cell과 1000차원의 임베딩을 진행하였다.
- 매개변수는 -0.1 ~ 0.1로 균일하게 초기화 하며 10 epochs로 훈련하였다.
- optimizer : SGD를 사용하였으며 Ir = 1이다.
- 스케쥴러: 5epoch 이후에는 매 애포크 마다 Ir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.
- mini-batch size = 128
- normalized gradient은 norm이 5를 초과할때마다 다시 조정한다.
- Dropout은 0.2로 지정하여 사용하는데 Dropout을 적용한 Model은 12epoch로 훈련시키며 Ir은 8epoch 이후에 감소시킨다.
- Local attention 모델같은 경우 window size D = 10

Experiments

System	Ppl	BLEU
Winning WMT'14 system – phrase-based + large LM (Buck et al., 2014)		20.7
Existing NMT systems		
RNNsearch (Jean et al., 2015)		16.5
RNNsearch + unk replace (Jean et al., 2015)		19.0
RNNsearch + unk replace + large vocab + ensemble 8 models (Jean et al., 2015)		21.6
Our NMT systems		
Base	10.6	11.3
Base + reverse	9.9	12.6 (+1.3)
Base + reverse + dropout	8.1	14.0 (+1.4)
Base + reverse + dropout + global attention (location)	7.3	16.8 (+2.8)
Base + reverse + dropout + global attention (location) + feed input	6.4	18.1 (+1.3)
Base + reverse + dropout + local-p attention (general) + feed input		19.0 (+0.9)
Base + reverse + dropout + local-p attention (general) + feed input + unk replace	5.9	20.9 (+1.9)
Ensemble 8 models + unk replace		23.0 (+2.1)

- Base는 [Bahdanau et al.2015] D. Bahdanau, K. Cho, and Y. Bengio. 2015.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. InICLR. 이 논문에 나온 기본 attention 모델이라고 볼 수있다.
- 실험 결과로 보았을때 마지막 가장 많은것을 적용한 모델(local-p)(general)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면서 앙상블을 하였을시 23.0~BLEUz SOTA를 달성하였다.

Experiments

System	BLEU
Top – NMT + 5-gram rerank (Montreal)	24.9
Our ensemble 8 models + unk replace	25.9

System	Ppl.	BLEU	
WMT'15 systems			
SOTA - phrase-based (Edinburgh)		29.2	
NMT + 5-gram rerank (MILA)		27.6	
Our NMT systems			
Base (reverse)	14.3	16.9	
+ global (location)	12.7	19.1 (+2.2)	
+ global (location) + feed	10.9	20.1 (+1.0)	
+ global (dot) + drop + feed	9.7	22.8 (+2.7)	
+ global (dot) + drop + feed + unk	9.7	24.9 (+2.1)	

- 왼쪽 사진은 wmt'15 데이터셋인데 더 적은 wmt'14 데이터로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wmt'15에서 SOTA를 달성하였다.(English-German)
- 오른쪽은 WMT'15 German-Englist 테스크인데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.

Experim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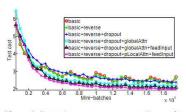


Figure 5: **Learning curves** – test cost (In perplexity) on newstest2014 for English-German NMTs as training progresse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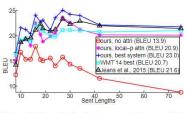


Figure 6: Length Analysis – translation qualities of different systems as sentences become longer.

- Learning curves를 보았을때도 Local에 저 방법을 적용한 것이 Test cost 가 가장 낮은 것을 볼수 있다.
- 우측 사진의 번역 품질을 보았을 때도 긴 문장에 대해 기존 방법은잘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저자가 주장한 논문에서는 긴 문장도 잘 번역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

Question

- 1. 앙상블에 대해 어떠한 다른 방식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점
- 2. 기존의 soft attention과 hard attention의 문제점 그리고 방법론
- 3. 실제 모델의 구현에 대한 각종 연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최종 차원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
- 4. 아래 그림의 <eos> 토큰이 어떻게 바로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

